

목양칼럼

애들은 가라

야바위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한 번 와보라” 고 외치면서 동시에 이런 으름장 섞인 말도 합니다. “자 자 애들은 가라.” 야바위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장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에 자기들이 사기 치는 것이 들통날까 봐 걱정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애들은 가라” 는 야바위꾼의 쉼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말하다가 뭔가 불리한 듯 싶으면 갑자기 그 아이를 위아래로 꺾어보다가 통명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어디서 쪼그만 게 까불어. 저리 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애들은 가라.” “어디서 까불어!” 라고 차갑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어른도 좋아하십니다. 왜 그리신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 18:3b-5)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라고 정의(定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을 향해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어서 와라. 이 천국은 너희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란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4340, 4344, 4347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교육전도사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행혜옥/중국어부,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소유영/유치부 (917)318-7030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직원	정진규/관리 (718)939-0005	홍현숙/서무 (201)759-0820	신성근/방송
찬양대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지휘 / 윤민상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김보라	반주 / 윤원주
			Shen de Guia/OPEM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일예배 어린이주일

주후 2017년 5월 7일
제 43-19호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9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정길표 장로
		2부 / 송동울 장로
		3부 / 황인섭 장로
		4부 / 임 정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에베소서 6:1-4
		사회자
찬양	CHORUS	날 사랑하심
		임마누엘 찬양대
		어린 아이처럼
		호산나 찬양대
		예수께로 가면
		시온 찬양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아버들이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564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9/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어린이 헌신 예배

오후 4:00 (5/7/17)	사회: 조하민 어린이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546 다같이
기도	남건우 어린이
성경봉독	최서진 어린이
에베소서 6:10-17	
찬양	유초등부 찬양대
말씀	차평화 전도사
굳게 서리라! Stand Firmly!	
헌금	50 다같이
헌금기도	임종수 어린이
광고	안아란 어린이
특별순서	꿈 선포하기
축복기도 1	영아, 유아, 유치부
축복기도 2	유, 초등부
축도	김성국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James 1:22-27	
Prayer	Dn, Uriah Lee
Sermon	Pastor Kiwi Jin
"Let's Do This"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Л. Тен
от Матфея 18:1-4	
Молитва	Х. Гулямов
Проповедь	Владимир Сон
Будьте как дети.	

수요 기도 예배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5/10/17)	사회: 남주인 집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이숙희 집사
성경봉독	이은술 집사
여호수아(书) 14:6-15	
찬양	찬양대
말씀	첸위지 전도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헌신찬양	마리아 선교회
헌금	347 다같이
헌금기도	정민영 집사
광고	박경미 집사
찬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18:1-4	
证道	陈玉捷传道
十字架的样式	

새가족 환영회

제 4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레이스 합창단 음악회

일시: 5/14(주) 오후 4:00 저녁예배

성경암송대회

일시: 5/21(주) 예선: 5/7(주)

교회소식

5월 가정의 달 - 하나님공경, 부모님효도, 자녀사랑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5/7(주) 어린이 주일 / 어린이 헌신 예배	5/10(수)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
5/12(금) 구역 예배	5/14(주) 아버지 주일 / 그레이스 합창단 음악회
5/17(수) 요한 선교회 헌신 예배	5/21(주) 제자훈련플러스 수료 예배 / 성경암송대회

알림

1. 어린이 헌신예배로 저녁예배를 드립니다.
2. 성경암송대회가 5/21(주)에 있습니다. 예선은 오늘(5/7) 오후 3시에 209호실에서 있습니다. 문의: 김재형 목사
3. 전도폭발 제 54기 기도후원자 모임이 5/16(화) 오후 7:45에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기도후원자들의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4. 러시아어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를 5/28(주) 오후 4시 저녁예배 때 드립니다.
5.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5/29(월)에 Belmont Lake Park 에서 있습니다.
6. 선교 바자회가 6/3(토)에 있습니다.
7. 2017년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7/2(주)-4(화)에 Hudson Valley Resort에서 있습니다.
8. 아가페 400호(7월호) 기념 백일장 안내
 - 1) 행사주제 [시와 수필] 내가 만난 예수님, 비전-다민족선교, 아버지(主)전상서 [성 화] 성경 속의 이야기(성경 내용 주제로 한 인물, 사건, 복음 등 그림, 디지털 이미지) [카툰 사진전] 한마음 한가족 퀴즈장로교회, 아름다운 우리 부서 등(사진설명 첨부)
 - 2) 기간: 6/11(주)까지 3) 문의 및 접수: 소유영 전도사, 채영주 집사, 아가페 편집부 (kapcq2017@gmail.com)
9. 한국학교 아버지날 행사가 5/13(토) 오전 11시 지하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우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10. 2017아가페 유치원 등록 안내 (여름학교, 가을학기)
 - 1) 대상: 2세 - Kindergarten. 2) 문의: 아가페 유치원 사무실 (718-886-3564)
11. 2017 여름학교 안내 1) 조기 등록: 5/15(월)까지 2) 대상: Kindergarten - 12학년(SAT Class)
 - 3) 기간: 7/5(수) - 8/11(금) (6주) 4) 문의: 여름학교 사무실(210호) (718)886-4646
12. 5/13(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호산나 찬양대 (다음주: 1교주)
13. 가족기념 장학기금 최재영, 이해연 가정, 윤영철 장로, 윤자숙 권사

새가족

김예화 (에스터 2F13, 최아정- 유아), 유선미 (마리아 4WS1, 박승호 - 유치, 박승리 - 유아)

교우소식

소 천 정미정 집사(3F1) 모친 김호순씨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졸업연주 김현우 집사(1F11) 졸업 연주가 5/5(금)에 퀸즈 컬리지 음대에서 있었습니다.

금식기도자

월 / 허경화 손귀자 김미정 박은혜 주 / 박영님 박은혜 유정신 김보화 홍승룡 홍정희
 화 / 유정애 허경화 김석영 박은혜
 수 / 박기자 정재숙 정현진 이송은 김은경 박은혜 목 / 박정봉 김은경 박은혜
 금 / 김주희 박석미 이옥수 박은혜 토 / 김혜숙 정혜자 주봉순 박은혜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69	중국어 예배	245	수요 기도 예배	231	유년부	104
2부 예배	301	러시아어 예배	18	새가족 환영회	16	초등부	80
3부 예배	336	청년 선교부	85	영어부	41	중등부	51
4부 예배	203	주일 저녁 예배	310	유아부	50	고등부	57
영어 예배	172	새벽 예배	1017	유치부	50	청년 대학부	44
주일 낮 장년 예배	1629	교회 학교 예배	477	주일 낮 총계		2106	

5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김원도 장로

헌신기도(다음주)	장봉석 장로	고국환 장로	이희영 장로	황주현 장로
책임권사	김홍덕 권사	김청자 권사	최경선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현	임승룡 이숙규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선의 박새롬 정형진 조희주 권동은 송가현 조한결 김서희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욱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이숙규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서희 박새롬 조희주 권동은 신예지 박재상 조한결 정형진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브리스가 아글라 주일식사: 마르다 (다음주: 다비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넷서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소요리 문답

문 95)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니까?

답: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407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6장 35-40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 기도하던 장소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였습니다.(40절) 감옥에서 잡혀갔던 자들이 오히려 자유로왔던 자들을 위로하는 신기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셨던 분이 이미 이전부터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죽을 때를 아시고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상에서까지 어머니를 살펴 보았던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날마다 위로와 권면, 사랑을 넘치게 하는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337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7장 1-9절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머무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을 보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불러 이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잡힌 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그들을 맞아 들였던 집 주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무 일도 없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200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7장 10-15절

바울과 실라는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뢰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도행전은 이곳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두가지로 표현합니다. 한가지는, “간절함” 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목말라 하며 소중히 받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성실함” 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들은 말

씀을 날마다 다시 살펴 보며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듣고 읽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202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7장 16-21절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였던 유대인이 베뢰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는 베뢰아에 놔둔 채 혼자 아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텐 사람들의 모습은 베뢰아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텐 사람들은 가득한 우상들, 학문과 철학을 그들의 유희 거리 삼아 매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격분하여 이들과 변론하지만, 이들은 복음도 그저 새로운 흥밋거리의 하나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복음은 교만한 자, 배부른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진정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516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7장 22-34절

바울의 설교는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상과 삶을 꿰뚫어 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결과는 미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웅장했던 우상들도, 한창 유행이었던 학문이나 철학들도 지금은 모두 빛 바랜 과거의 유물 들일 뿐이지만, 그 당시 그들이 무시하였던 이 복음은 아직도 살아서 변함없는 유일한 구원의 소식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508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18장 1-4절

바울은 아텐을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의 자비량 선교입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은 여러 곳들을 순회하며 자신의 지식과 언변을 업으로 삼아 먹고 살았으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복음을 복음답게 하기 위하여서 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